

이옥의 〈중흥유기(重興遊記)〉에 나타난 여행 형상화의 특징

-대상 중심의 서술과 주체의 위치를 중심으로

홍인숙*

〈차 례〉

1. 서론
2. 조선시대 산수유기의 시대적 추이와 특징
3. 이옥의 〈중흥유기〉의 여행 형상화
 - 1) 사물과 대상을 경유한 체험 제시
 - 2) 해석의 최소화를 통한 대상의 부각
4. 결론- 사물과 대상의 뒤로 물러난 주체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후기 이옥(李錡, 1760~1812)의 〈중흥유기(重興遊記)〉에 나타난 여행 형상화의 특징이 사물과 대상을 서술하는 방식에 있다고 보고 산수유기로서의 독특성과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여행은 주체가 자연을 체험하고 감상하는 경험으로서 여정의 주체가 강조되는 경험이었다. 조선전기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산수유기에서 이러한 주체 중심성이 강조되었던 것에 비해 이옥의 〈중흥유기〉는 대상에 초점을 둔 여행 서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조선시대 산수유기의 시대적 추이와 특징을 간략히 살핀 후 〈중흥유기〉의 여행 체험 서술의 특징을 ‘사물과 대상’을 중심에 둔 체험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해석의 최소화를 통해 대상을 부각’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중흥유기〉의 여행 형상화는 여행의 ‘주체’를 강조하는 인간중심주의적 시각이라기보다는 ‘대상’의 현상과 상태를 중시하는 대상, 즉 ‘물(物)’ 자체의 존재성과 개별성을 중시하는 시각이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물(物)의 조합’ 그 자체로 여행 경험을 서술하고 있는 〈중

* 홍익대학교 교양과 부교수

홍유기>는 이옥 특유의 대상과 주체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며, ‘주체’인 작가를 대상과 타자의 뒤로 몰려나 있게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이옥(李鈺), <중흥유기>, 사물, 대상, 북한산, 유기, 산수유기, 여행기

1. 서론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이옥(李鈺, 1760~1812)이 쓴 산수유기 중 하나인 <중흥유기(重興遊記)>를 대상으로 그 속에 사물과 대상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산수유기라는 여행 기록으로서의 특징과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중흥유기>는 1793년 8월 22일 서른넷의 이옥이 김려를 비롯한 세 명의 벗과 함께 북한산성의 중흥사와 그 주변의 사찰들을 4박 5일간 유람한 후 지은 글이다.¹⁾ 전체 길이는 대략 3천 자 가량이며 15항(項) 47칙(則)의 분절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보면 여행의 준비와 여정(4개 항), 본격적인 견문(10개 항), 마무리(1개 항)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 작품은 그간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소품체 산수유기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여러 연구자들에게 주목을 받아왔다. 우선 이 작품을 주요하게 다룬 연구는 신익철과 황아영에게서 볼 수 있다. 신익철은 이옥이 이 작품을 쓴 1793년이 정조에게 바친 응제문에 소품체를 써서 문책을 받은 바로 다음 해임에도 형식적, 문체적인 실험성을 보여준 산수유기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흥유기>를 단독으로 소개했다. 그는 이 작품이 이옥의 소품체 작가

1) 이옥 작품의 번역과 원문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이옥, 『선비가 가을을 슬퍼하는 이유 - 완역 이옥전집』 1권,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기고 엮음, 휴머니스트, 2009, 375~397쪽; 이옥, 『자료편 원문-완역 이옥전집』 4권,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기고 엮음, 휴머니스트, 2009, 116~126쪽. 번역은 원문과 대조하여 일부 수정한 부분도 있다.

로서의 애정과 고집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유람 일정과 상관없는 소재별로 독립된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술하는 구성’을 했다는 점을 중요한 특징으로 언급했다.²⁾ 황아영은 이옥의 산수유기의 미적 특성을 ‘전체성에 대한 거부’와 ‘일상에 대한 포착’이라고 보았는데 <중흥유기>보다 <남정십편>에 좀 더 무게를 둔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³⁾⁴⁾

그 이후 <중흥유기>는 조선후기에 유행한 소품적 문체로 쓰인 개성적인 유기들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되었으나 본격적으로 분석되기보다는 그 시기 소품체 유기의 다양한 변이의 한 예시로 들면서 구성과 수사법의 측면을 짧게 언급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작품이 취하고 있는 ‘세목화’의 구성이 명칭의 산수유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거나, ‘보고서 같은’ 요약적 기술을 한 점이 권상신, 이덕무의 유기와 비슷하다거나, 작품 마무리에 있는 ‘총론’ 부분에 ‘아름답다(佳)’라고 하는 글자를 34차례나 나열한 것이 파격적인 문체 실험이라고 하는 언급 등이 대표적이다.⁵⁾

이 글에서는 기존 산수유기 전통 속에서 <중흥유기>라는 텍스트가 갖는 독특한 지점이 여행에서 만난 ‘대상’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에 있

2) 신익철, 「<중흥유기>의 글쓰기 방식과 18세기 북한산 산행의 모습」, 『문헌과해석』 11, 문헌과해석사, 2000, 148쪽.

3) 황아영, 「이옥 유기의 미적 특성」, 『한문고전연구』 16,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261~294쪽.

4) 이옥의 작품 중에서 여행, 유람의 체험을 담고 있으면서 ‘유기(遊記)’라는 제목을 단 작품은 <중흥유기> 뿐이다. 그 외 유기에 가까운 유일한 작품은 <남정십편>으로, 충군의 역을 수행하기 위해 이옥이 경상도 삼가현까지 갔던 길의 여정과 견문을 담고 있다. 이 작품에서도 나열과 반복, 대화체와 같은 이옥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이 두드러지지만 귀양 가는 성격의 여정이라는 특수한 상황 맥락에서 주체의 자기 응시 및 서술되는 대상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정우봉, 「조선후기 유기의 글쓰기 및 향유방식의 변화」, 『한국한문학연구』 49, 한국한문학회, 2012, 110~111쪽; 안대회, 「조선후기 소품체 유기의 연구」, 『대동문화연구』 7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2, 227쪽; 정민, 「18세기 산수유기의 새로운 경향」,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178쪽.

다는 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여행이라는 경험은 주체가 자연을 체험하고 감흥을 느끼며 감상하는 것, 즉 여정을 떠나는 ‘주체’가 강조되는 경험이다. 조선시대의 ‘산수유기’라는 장르에서도 중요한 것은 산수를 유람하는 ‘주체’가 자연이라는 ‘대상’⁶⁾에서 어떤 이치를 발견하는가 하는 것이었다.⁷⁾ 즉 여행의 중심점인 인간이 어떻게 대상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6) 대상(object)이란 주체(subject)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2000년대를 전후하여 인간 주체의 이성과 언어, 담론과 사유를 중심으로 하던 철학적 사조에서 사물과 기술, 물질, 동물, 자연 등의 비인간 대상을 중심으로 한 전환이 일어났는데 이를 ‘물질적 전환(material turn)’, ‘존재론적 전환(ontological turn)’이라고 한다. 이 배경에는 전 지구의 환경과 생태에 미친 인류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성찰을 담은 지질학적 연대명인 ‘인류세(anthropocene epoch)’에 대한 책임의식, 인간의 의식과 이성에 포착되지 않은 그 바깥의 세계가 훨씬 큰 것이며 그 세계가 인간이 지각하고 의식하는 세계를 포괄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적 인식이 깔려 있다. 이러한 철학적 전환은 주체 중심의 철학과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에서 객체와 사물, 동물과 자연의 힘과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회를 의미하며, 사물과 자연의 존재적 가치가 동등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도구화되고 타자화된 대상이었음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물질적 존재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신유물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객체중심 철학 등의 이론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인간의 이성과 의식에 압도적인 권력과 권한을 주었던 근대적 사고의 오만함이 인간을 포함한 전지구적 생태와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 근본적인 위기를 초래했다는 생각을 공유한다. 주체에 중심을 둔 철학적 사조 속에서 대상(object)는 주로 주체에 의해 포착되는 수동적인 속성을 강조해 ‘대상’으로 번역해 왔으나 최근에는 주체의 의도와 개별적으로 object가 ‘그 자신의 존재성’을 가진 것임을 포착하는 사조에서는 ‘객체’라는 번역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김상민·김성윤, 「물질의 귀환: 인류세 담론의 철학적 기초로서의 신유물론」, 『문화과학』 97, 문화과학사, 2019, 55~80쪽; 박일준, 「객체지향의 철학: 초객체와 네트워크 그리고 공생」, 『인문논총』 55,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5~30쪽; 브루노 라투르, 「인간·사물·동맹-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홍성욱 역, 이음, 2010, 95~124쪽; 제인 베넷, 『생동하는 물질: 사물에 대한 정치생태학』, 문성재 역, 현실문화, 2020, 33~74쪽.

7) ‘조선시대의 문인들은 산수 유람을 단순한 유흥으로 여기지 않고 심성 수양의 한 방식으로 인식하였다.’ (이종목, 「유산의 풍속과 유기류의 전통-장서각본 <와유록>과 규장각본 <와유록>을 중심으로」, 『고전문화연구』 12, 한국고전문화학회, 1997, 81~106쪽.); ‘산수는 그 자체로 주체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고 작가의 주체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는 객체이다. 그래서 산수는 작가의 인식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김범철, 「잡기문의 특성과 양상」, 『한국 한문학의 이론』, 보고서, 2007, 302~320쪽.)

가 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것이다.

이옥의 <중흥유기>는 이러한 산수유기의 전통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여행 체험과 대상에 대한 관점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주체보다는 ‘여정 중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그래서 ‘물(物)의 조합’ 그 자체가 하나의 여행 경험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글이라는 점, 그러한 서술의 배경에 대상과 주체에 대한 이옥 특유의 작가적 태도가 함축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시대 산수유기의 전통적 방식을 살펴보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 작품이 갖는 차이를 짚어보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려 한다.

2. 조선시대 산수유기의 시대적 추이와 특징

이 장에서는 이옥의 유기가 갖는 특이성을 이해하기 위해 조선시대 산수유기의 전통적인 자연관과 서술 방식의 변화를 시대적 추이에 따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전기에서 중기까지의 대표적인 산수유기는 김종직(1431~1492)의 <유두류록>, 주세붕(1495~1554)의 <유청량산록>, 퇴계 이황(1502~1571)의 <유소백산록>, 남명 조식(1501~1572)의 <유두류록>, 권호문(1532~1587)의 <유청량산록>, 정구(1543~1620)의 <유가야산록>, 김효원(1542~1590)의 <두타산일기>, 조호익(1545~1609)의 <유묘향산록> 등과 같은 작품을 꼽을 수 있다. 조선 전기 산수유기의 형식은 사림의 종장으로 일컬어지는 김종직의 <유두류록>에서 ‘산행 동기-산행-평가’와 같은 유산록의 일반적인 서술 체제를 갖추었다고 평해지며, 산을 오르는 일은 곧 ‘공자의 태산 등정’과 ‘주자의 형산 등반’을 따라 하는 유자로서의 모종의 실천적 행위로 여겨졌다.

이들의 산수 유람의 기록은 바쁜 관직 생활로 미뤄두었던 자연에 대한

숙원을 푸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했다.⁸⁾ 애써 시간을 내 귀하게 마련한 유람의 의미는 ‘사물의 근본 이치’를 깨닫고 ‘성인의 도’를 확인하며 그 뒤를 따르고자 하는 자기 성찰에 두어졌다.⁹⁾ 특히 남명 조식의 <유두류록>의 다음 대목에 대해서는 퇴계 이황이 ‘일마다 우의하여 감정을 일으키고 고취시키는 지극한 논의’라고 높이 평가하였는데¹⁰⁾, 그 후 이 구절은 남명학과와 퇴계학과와 후대 문인들에게 하나의 명언처럼 두고두고 회자되며 유산(遊山)이라는 경험의 하나의 마땅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처음 위로 올라갈 때 한 걸음을 내딛으면 한 걸음을 다시 가기가 더욱 어려웠다. 내리막에는 다리만 들면 몸이 저절로 아래로 내려갔다. 어찌 선을 좇는 것이 오르막길 같고 악을 좇는 것이 내리막길 같지 않겠는가? 선을 행하는 것은 습관 때문이요, 악을 행하는 것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위로 향하는 것도 사람이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사람이니, 그저 한 걸음 사이에 달려 있을 뿐이다.¹¹⁾

8) 조선시대의 ‘와유록(臥遊錄)’과 ‘와유 문화’는 자연에 대한 열망을 가졌으나 ‘벼슬에 매여서 도성 안에 살면서 직접 산수를 찾기 어려웠던’ 사대부들이 자연을 자신이 쉽게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했던 기록과 문화를 말한다. ‘원림(園林)’을 조성하거나, 바위나 나무로 인공의 산인 ‘석가산(石假山), 목가산(木假山)’을 만들거나, ‘와유도’나 ‘와유록’을 제작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종목, 「조선시대 와유 문화 연구」, 『진단학보』 98, 진단학회, 2004, 81~106쪽을 참고.

9) 조선전기와 중기의 산수유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은데 본고에서 참고한 것은 다음과 같다. 호승희, 「조선전기 유산록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18, 한국한학회, 1995, 97~126쪽; 이혜순 외,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 집문당, 1997, 1~500쪽; 이종목, 앞 논문, 1997, 385~407쪽; 심경호, 「구도자의 산수유람- 퇴계의 산수유기」, 『한문 산문의 내면 풍경』, 소명출판, 2002, 5~28쪽; 이종목, 앞 논문, 2004, 81~106쪽; 이종목, 「관물(觀物)과 성찰의 공부- 남명학과를 중심으로」, 『남명학』 22, 남명학연구원, 2017, 129~156쪽.

10) ‘曹南冥遊頭流錄, 觀其遊歷探討之外, 隨事寓意, 多感憤激昂之辭, 使人凜凜猶可想見其爲人. 其曰一曝之無益, 曰向上趨下只在在一舉足之間, 皆至論也.’, 이황, <書曹南冥遊頭流錄後>, 『退溪集』 권30.

11) 初登上面, 一步更難一步. 及趨下面, 徒自攀足, 而身自流下. 豈非從善如登, 從惡

위 인용문에서 조식은 ‘선한 심성을 수양하는 일’의 어려움을 지리산 등정 중 만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에서의 경험에 비유하고 있다. 그는 오르막길에서 한 걸음 더 올라가는 것의 어려움을 선을 행하는 어려움에 빗대고, 내리막길의 한 걸음은 가볍다는 것을 악을 행하는 일의 손쉬움에 빗댄다. 또 그러한 선행과 악행의 실천이 ‘습관’에 달려있음과 ‘한 걸음의 꾸준한 실천’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을 통한 이치의 자각은 후배 문인들의 산수유기에 <논어>, <대학> 등의 인용과 함께 유교적 철리를 이해하게 되는 장면으로 다양하게 변용되어 나타났다. 조식의 제자인 정구가 ‘여기가 높지만 더 높은 봉우리가 있으니 지금 멈출 수는 없다’라고 한 표현이나¹²⁾, 이황의 제자인 권호문이 길이 끊어진 곳의 다리를 만나자 그 앞에 멈춰서서 ‘도를 행하는 것도 큰 용기를 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것’¹³⁾임을 깨닫는 대목은 산행의 의미를 유가적으로 전유하는 이 시기 문인들의 의식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산수유기의 전형성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이다. 변화를 이끈 것은 농암 김창협(1651~1708)과 삼연 김창흡(1653~1722)이었다.¹⁴⁾ 농연(農淵)으로 불리는 이들은 각각 9편, 13편의 산수유기를 남기면서 이후 문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농암 김창협은 자

如崩者乎. …… 爲善由有習也, 爲惡由有狃也. 向上猶是人也, 趨下亦猶是人也, 只在一舉足之間而已. 조식, <遊頭流錄>, 『南冥集』 권2.

12) ‘此地位儘高矣, 然更有上峯, …… 復相與以不可以止乎.’ 정구, <遊伽倻山錄>, 『한강집』 53권.

13) ‘行道亦如是, 當平地則行之不難, 及到峻截處, 則非大勇勉強. 不能進一步也.’ 권호문, <遊清凉山錄>, 『松巖集』 권5.

14) 18세기 전반의 산수유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고연희, 『조선후기 산수기행예술 연구- 정선과 농연그룹을 중심으로』, 일지사, 2001; 안득용, 『농연 산수유기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22, 동양한문화회, 2006, 215~246쪽; 고연희, 『조선후기 산수기행문예에 나타나는, ‘기(奇)’의 추구』, 『한국한문학연구』 49, 한국한문화회, 2012, 69~100쪽; 백진우, 『월곡 오원(吳瑗)의 산수유기 연구- 금강산 유가인 「유풍악일기」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38, 열상고전연구회, 2013, 497~533쪽.

연에서 성리학적 이치를 발견하고자 하면서도, ‘산수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생생하게 묘사하며 거기서 느낀 감흥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들 유기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산수의 묘사’와 ‘자연에 대한 품평’이었다.¹⁵⁾

식당암 이하는 비교하면 만폭동, 백곡연에 미치지 못한다. 구룡연은 채와 격을 갖추고 있지만 미약하니 울곡의 품평은 아마 지나친 칭찬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토왕성폭포는 식당암에서 십 리쯤의 거리에 있다. 거대한 절벽에 구름이 뒤섞였는데 폭포의 흐름이 그것을 가르며 떨어진다. 큰 벽이 넓게 펼쳐있고 물살이 굽어지지 않으니 그 기세가 장쾌하다. 상(上)임은 말할 것도 없고 찬 시내와 폭포의 명성으로는 최고를 다룰 만하다.¹⁶⁾

위 인용문은 설악산과 동해안을 다녀온 여행기인 삼연 김창흡의 <동유소기>의 한 대목이다. 여기서 삼연은 ‘식당암’ 이하가 다른 승경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교하기도 하고, 전대의 유람자인 ‘울곡의 평이 실제보다 과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며, ‘토왕성폭포’는 규모와 기세가 ‘상(上)’을 넘어 ‘선두를 다룰 만하다’고 하면서 경치의 아름다움을 놓고 우열을 가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치에 대한 ‘품평’은 조선전기의 산수유기에서 추구하던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지향과는 다른, 경치의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데 이는 심미적인 안목을 중시하는 태도이기도 했다.

농암 김창협과 삼연 김창흡이 마련한 산수유기의 변화의 계기를 더 구체

15) 안득용, 앞의 논문, 226쪽.

16) ‘食堂巖以下，趕不上萬瀑百淵。而九龍淵則具體而微，栗谷品題，恐不免爲溢美。……土王城瀑布，在食堂十餘里許。巨壁參雲，瀑流中劈而下。壁既展廣，流不屈曲，其勢甚壯。毋論上乘，寒溪瀑名，殆可與開先爭雄.’，김창흡, 「東遊小記」, 『三淵集』 권24.

화하여 분화해 나간 양상은 18세기 후반 명말의 공안파 문인들인 원굉도(袁宏道)와 왕사임(王思任)의 영향을 받은 일군의 소품적 문체의 유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⁷⁾ 이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이덕무(1741~1793)의 <서해려언(西海旅言)>, <칠십리설기(七十里雪記)>, <기유북한(記遊北漢)>, 박제가(1750~1805)의 <유묘향산소기(遊妙香山小記)>, 심노승(1762~1837)의 <해악소기(海嶽小記)>, 권상신(1759~1824)의 <남고춘약(南阜春約)>, <정릉유기(貞陵遊記)>, 이옥(1760~1813)의 <중흥유기(重興遊記)>, 정약용(1762~1836)의 <유세검정기(遊洗劍亭記)> 등이다. 이들 작품은 형식적 측면에서는 ‘소형화, 조합화, 절목화’와 같은 특징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적인 체취와 감성의 추구, 개성적이고 섬세한 정서 표현’ 등의 특징을, 장소의 차원에서는 ‘전국적 명성을 가진 명산 이외에도 한양 주변의 산수’를 택하는 특징¹⁸⁾을 보여주고 있다.

세검정의 승경은 단연 소나기 올 때 폭포를 보는 것이다. …… 내가 술병을 탁탁 치고는 일어나 말했다. “소나기가 올 모양이네. 그대들은 함께 세검정에 가지 않겠는가? 거절하는 이는 벌주로 술 열 병을 내도록 하라.” 그러자 모두 말했다. “말할 수 없이 좋다!” 곧 다같이 말을 재촉해 나가는데 창의를문을 나서자 빗방울이 몇 개 떨어지더니 금방 주먹만 하게 커졌다. …… 물이 맹렬하게 솟구 치며 정자 초석을 스쳐 지나가는데 기세와 소리가 맹렬하여 서까래와 난간이 흔들리니 겁이 나 가만있기 어려울 정도였다. 내가 “어떠한가?” 묻자 모두 말했다. “말할 수 없이 좋다!” 술과 안주를 내오게 하여 웃으며 즐겼다.¹⁹⁾

17) 이들 작품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정민, 앞의 글, 178쪽; 정우봉, 앞의 논문, 104~111쪽; 안대희, 앞의 논문, 211~240쪽.

18) 정우봉, 앞의 논문, 104~111쪽; 안대희, 앞의 논문, 223쪽, 233쪽.

19) ‘洗劍亭之勝, 唯急雨觀瀑布是已. …… 余蹶然擊壺而起曰, “此暴雨之象也. 諸君豈欲往洗劍亭乎? 有不肯者, 罰酒十壺, 以供具一番也.” 僉曰, “可勝言哉!” 遂趣騎從以出, 出彰義門, 雨數三點已落, 落如拳大. …… 水掠亭礎, 勢雄聲猛, 檳檻震動, 凜乎其不能安也. 余曰, “何如?” 僉曰, “可勝言哉!” 命酒進饌, 諧謔迭作.’ 정

위 인용문은 정약용의 <유세검정기>이다. 작자는 세검정의 특별한 운치가 ‘폭우가 쏟아지는 모습’에 있는데 ‘흠뻑 젖은 말을 타려는 사람은 없으며 비가 개면 풍경도 그만 못하다’는 평소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글을 시작한다. 그러다 우연히 비를 만나게 되어 빗들을 부추겨 빗속 유람을 감행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요 골자이다. 거절하는 자에게 별주를 내게 하자는 제안, 폭우 속에 말을 달리는 모습, 맹렬하게 불어난 물과 정자가 흔들릴 정도로 세찬 비를 즐기며 모두가 ‘말할 수 없이 좋다!(可勝言哉!)’를 외치는 모습 등 짧고 낭만적인 여행의 묘사는 이 시기 소품적 유기의 정취를 잘 보여준다.

이상 간략하게 정리해본 조선시대 산수유기 서술 경향의 시대적 변화를 미적 기준과 주체의 차원에서 요약하자면 이러하다. 조선 전기의 산수유기는 산수 자연에서 정신적 가치를 읽어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정신미’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 시기 유기가 여행을 통해 ‘인식하고 사고하는 주체’의 경험이 강조되는 양식이었음을 보여준다.²⁰⁾ 이에 비해 조선 후기 농암과 삼연의 산수유기는 자연을 통해 그 풍경 자체의 아름다움을 품평하는 변화를 보였다는 점에서 ‘자연미’를 추구한 것이다. 이는 ‘미를 알아보고 우열을 평가하는 주체’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그러한 주체의 ‘판단 능력과 안목’이 중시되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18세기의 산수유기의 전환은 ‘인식과 사고의 주체’에서 ‘미적 식별과 평가의 주체’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한편 18세기 후반의 소품체 유기는 자연에서 느끼는 정서와 감성, 그것의 독자

약용, 『游洗劍亭記』, 『與猶堂全書』 권40.

- 20) 조선전기 산수유기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대목 중 하나는 유람자들이 산봉우리에 스스로 이름을 지어주는 명명(命名)과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는 제명(題名)을 하는 장면이다. 주세붕의 <유청량산록>과 퇴계 이황의 <유소백산록>은 주자의 사례를 전거로 들며 자신이 유람한 산에서 봉우리들의 이름을 직접 명명한다. 오원은 <유풍악일기>에서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절경인 암벽이나 절벽을 만나면 ‘제명(題名)’을 하여 자기 이름을 새긴다. 이러한 이름 붙이기, 혹은 이름 남기기 또한 자연이라는 대상을 주체 중심적으로 점유하고자 하는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적인 표현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문예미’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문체적인 실험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남들과 다른 자기만의 독특한 정서와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개성과 자의식을 가진 문학적 표현의 주체’로 변화해 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산수유기는 시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체’의 시각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인식과 깨달음의 주체로서, 미적 평가의 주체로서, 감흥과 정서의 표현 주체로서의 인간이 중심인 장르, 대상인 자연보다는 그것을 사고하고 향유하고 표현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에 초점이 맞춰진 장르였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조선시대의 산수유기는 지극히 인간중심주의적이고 주체중심주의적인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이옥의 <중흥유기>가 이러한 산수유기의 장르적 속성에서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는 작품인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이옥의 <중흥유기>의 여행 형상화

1793년의 가을의 유람을 바탕으로 한 <중흥유기>에서 ‘중흥’은 북한산에 있는 중흥사라는 절과 그 부근을 지칭하는 지명이다.²¹⁾ 실제 주요 유람

21) 현재 북한산은 삼각산과 도봉산 일대를 통칭하여 이른다. 산의 명칭에 대한 지리학 분야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산수와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한 글에서는 ‘삼각산’으로, 북한산성 중심의 역사문화 유적 비중이 높은 글에서는 ‘북한산’, 혹은 ‘중흥’이라는 지명으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한양 외곽을 방어하는 요충지의 역할을 담당했던 북한산은 18세기 초 숙종 대에 외적 방어용으로 북한산성을 축조했는데 이때 많은 승려들이 축성과 방위에 동원되면서 승군이 주둔하는 승영사찰들이 새로 지어졌다. 승영사찰은 예불공간과 군영공간을 갖춘 시설로 군사적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절이다. 그중에서도 중흥사는 산성의 축조 훨씬 이전인 고려 때 태고 보우가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로, 북한산성이 만들어질 당시 30여 칸에서 130칸의 규모로 확장했다고 한다. 특히 중흥사는 승영사찰 십여 개를 거느린 본영 사찰의 역할을 담당한 절이

지는 중흥사가 자리하고 있는 북한산성과 성곽 내에 있는 초루와 성문들, 세검정과 산영루를 비롯한 유명한 누정들, 그리고 중흥사를 비롯하여 산성 내에 있는 십여 곳의 사찰들이었다. 이 장에서는 이옥의 여행 형상화의 특징을 사물과 대상을 경유하여 여행 체험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여행의 주체인 자신의 해석을 최소화함으로써 대상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사물과 대상을 경유한 체험 제시

이옥의 <중흥유기>가 잘게 나누어진 ‘절목, 세목’의 향으로 되어 있음은 기존 연구에서 이미 특징적인 것으로 지적했던 바이다.²²⁾ 그런데 더 눈여겨 보게 되는 것은 그 목차 항목들의 구체적인 내용의 배치와 서술 방식이다. <중흥유기>의 짜임새는 크게 열다섯 개의 항목이며, 이를 구분해 보면 ‘서두’에 해당하는 것은 ‘일시, 동반자들, 행장, 약속’ 이고, ‘본론’에 해당하

었다. 이곳에는 산성 내 사찰에 주둔하는 승군과 승장의 총 지휘적인 승군대장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이 머물렀으며 동시에 화약 등 무기를 보관하는 군기창고가 있었다. 김선, 「북한산성 승영사찰의 공간 배치와 특징 연구」, 『백산학회』, 2019, 113~141쪽; 김선희, 「유산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삼각산 여행의 시공간적 특성」, 『문화역사지리』 21(2),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9, 132~150쪽; 윤기엽, 「북한산성의 승영사찰」, 『국학연구』 25, 한국국학진흥원, 2014, 493~533쪽; 이경순, 「조선후기 유산기에 나타난 북한산의 불교」, 『인문과학연구』 20, 덕성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9~22쪽; 이계형, 「북한산에 건립된 사찰의 시대별 추이와 특징」, 『한국학논총』 61,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4, 71~107쪽.

- 22) 이는 선행연구에서 절목화, 세목화라는 같은 구성을 택했다고 하여 거론되었던 이덕무의 <기유북한>, 권상신의 <남고춘약>과 사뭇 다르다. 이덕무는 정자나 절의 이름을 ‘세검정(洗劍亭), 소림암(小林菴), 문수사(文殊寺), 보광사(普光寺), 태고사(太古寺), 용암사(龍巖寺), 중흥사(重興寺), 산영루(山映樓), 부왕사(扶旺寺)’ 등과 같이 그대로 제시했다. 권상신의 글은 유기가 아니라 봄날의 모임을 위해 친구들끼리의 규약을 정하는 내용을 유희적으로 남긴 글인데 ‘꽃구경[賞花], 거문고와 책과 투호[琴書投壺], 표 만들기[做表]’를 즐길 때 각각의 규칙을 항목화하여 쓴 글로 놀이의 규칙과 어겼을 때의 징벌을 술잔 수로 정해두는 내용이다.

는 것은 ‘성곽, 누정, 관아 / 사찰, 불상, 승려 / 천석, 초목’이며, ‘숙식, 술, 총론’은 ‘마무리’이다. 표로 정리하면 이러하다.

표1. <중흥유기>의 항목 구성

서두 (3개 항)	시일(時日), 동반자[伴旅], 행정[行李], 약속(約束)	2,2,2,5칙
여정·견문 (8개 항)	성곽[譙堞], 누정[亭榭], 관아[官廨]	2,4,1칙
	사찰[刹利], 불상(佛像), 승려[緇髻]	5,5,12칙
	천석(泉石), 초목(草木)	1,2칙
마무리 (3개 항)	숙식[眠食], 술[盃觴], 총론(總論)	1,2,1칙

이러한 글의 전체 짜임새는 ‘여행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보여준다. 작가가 직접 세부 항목의 이름으로 제시한 ‘시일’부터 ‘총론’까지의 15개 항은 그 자체로 작가가 ‘이 여행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되는 것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항목들은 여행지의 순서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여행 주체의 경험적 시간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다. 여행이라는 하나의 큰 체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날짜, 동행, 준비물, 약속’이 있어야 시작될 수 있음을, 또한 ‘성곽, 누정, 관청’과 ‘사찰, 불상, 승려’와 ‘산천 초목’에 이르는 문화와 자연의 불가리들이 있어야 함을, 그 과정에 ‘자고 먹고 술 마시는 일’이 불가불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항목화는 그 자체로 여행이라는 체험에 대한 작가의 시각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객체화된 요소와 물적 요소들이 누적되고 결합될 때 여행이라는 큰 체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배치인 것이다.

‘서두’ 부분의 네 개 항목인 ‘시일, 반려, 행리, 약속’은 여행 전의 준비과정이다. 여행을 한 ‘일시’와 네 명의 여행 ‘동행인’들을 소개하며 어떤 ‘준비물’을 챙겼는지 보여준 후 그 여행이 어떻게 기획된 것인지를 ‘약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중 ‘반려’, 즉 여행에 참여한 동반자들을 서술하는 항목은 이 <중흥유기>가 시작부터 작가 자신의 여행 기록으로서 스스로가 체험

의 주체임을 내세우는 방식과는 약간 ‘다른’ 길을 표방함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반려. 자하옹 민사옹 원모와 귀현자 김려 사정 및 그의 아우 목서산인 김선 대흥이 함께 하였다. 나를 포함해 네 사람이다. 나는 이옥 기상이다. 처음 약속할 때는 진사 서치범도 동행하기로 했는데 일이 있어 오지 못했다. 동자 봉채도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오지 못했다. 그는 나중에 후회하였다.²³⁾

짧은 대목이지만 위 인용문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여행의 한 ‘부분’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가는 산수 유람이라는 경험의 주체로 자신을 제시하기보다는 ‘동행인들[伴旅]’이라는 항목의 일부로 넣어서 소개하고 있다. 다른 동행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름과 자를 밝히고 있다는 점도 기존의 산수유기에서 볼 수 없었던 자기 제시 방식이다.²⁴⁾ 서두 부분에서 또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는 여행 준비물인 행장, 즉 ‘행리(行李)’ 대목이다. ‘나귀, 종, 지팡이, 호리병, 표주박, 시통, 시권, 채전죽, 찬합, 우의, 이부자리와 담배 용구, 필묵연’²⁵⁾ 같은 소소해 보이는 사물들의 목록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여행에서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흥미롭지만, 숙식에 필요한 이러한 기본적인 사물들이 여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물적 구성요소라는 시각이 드러나 있는 대목이기도 하기 때문

23) 伴旅. 柴霞翁閔師膺元模甫, 歸玄子金士精鑣, 息其仲木犀山人大鴻鑄僭. 及余才四人, 余曰李鉉其相. 初約徐稚范 進士同, 適不來. 童鳳采期會, 不至, 其後悔.

24) 자신을 그 모든 여행의 요소들 중의 한 요소로만 집어넣고 있다는 것은 조선 전기 주세붕, 퇴계의 명명, 오원의 제명이 자연에 이름을 붙이거나 이름을 세졌던 행위의 주체 중심성과 특히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고 생각된다. 여행자인 자신이 여행의 일정과 여행 중의 자연 속에 있었던 일부였을 뿐임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25) 行李. …… 驢或馬一, 童子執具從者一, 執蹻蹻杖一, 葫膺一, 癭瓢子一, 班竹詩筒一, 筒中東人詩卷一, 彩牋軸一, 一人櫛一, 油衣一, 衾一, 氈一, 烟杯一, 脩五尺強烟小壺一. 僂僂先後出其門, 自謂整頓好之. 五里又思之, 所忘者, 筆墨硯.

이다.

여정을 시작한 후에도 서술의 흐름은 유람 주체의 여행과 건문의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곽, 누정, 관아, 사찰’과 같은 대상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각각의 서술도 전체적인 여행의 윤곽을 제시하되 여행자의 시선이나 여행 주체의 시간적 경험 순서를 따라간다고보다는 그 대상을 중심으로 여행의 체험이 전달되도록 하는 객관적 묘사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성곽’과 ‘관아’ 대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곽. 도성을 나간 곳은 서북쪽 창익문이고 도성을 들어온 것은 동북쪽 혜화문이다. 북한산을 들어간 것은 서남쪽 작은 문인 문수암문, 북한산을 나간 것은 동남쪽 작은 문인 보국암문이다. 암문이란 초소가 없이 성에 구멍, 즉 출입구를 만든 것이다. 직접 가서 본 것은 대남문, 대서문, 동북암문으로, 성 가운데 관문을 만들어 한어문이라 한 것이다. 멀리서 보기만 한 것은 외성의 한북문, 대동문, 동장대이다. 치침은 도성에 비해 낮고 얇지만 초루는 모두 새로 만들어 산뜻했다. 성곽과 회량은 규모가 있어 갑자기 일이 생겨도 외적을 막을 만했다.²⁶⁾

관청. 산성에는 행궁이 있는데 석립현이라고 한다. 선원첩을 보관하는 곳이 있고 산성을 관장하는 장영이 있고 훈국창이 있고 금영창이 있고 어영창이 있으며 모두 한 곳이 아니다. 화약고와 총섭영은 중흥사 옆에 있는데 군량, 갑옷, 병기를 보관하여 산성을 지키는 방책을 마련한 것이다.²⁷⁾

‘성곽[譙堞]’ 대목의 서술을 보면 ‘중흥’이라는 지명, 즉 북한산성과 그

26) 譙堞. 出國都城曰彰義門, 西北也, 入曰惠化門, 東北也. 入北漢, 西南小門曰文殊暗門, 出東南小門曰輔國暗門, 暗門, 不譙穴城. 行歷而見者, 大南門·大西門·東北暗門, 中城而關, 曰捍禦門者. 望見者, 外城之漢北門也, 大東門也, 東將臺也. 雉堞視京都, 雖庫且淺, 譙樓皆新而皖. 城廊有制, 倉卒足可爲暴客禦.

27) 官廩. 城中有行宮, 曰昔臨軒, 有璫源牒藏修所. 有甕城將營, 有訓局倉, 有禁營倉, 有御營倉, 皆匪一所. 有火藥庫, 有總攝營, 在重興寺旁, 蓋庖餼銀鎧仗, 爲城守計.

성내의 지역 전체를 유람한 이 여정의 전체적인 동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양의 도성을 벗어나 북한산 입구에 도착해 입산한 후 다시 하산하여 도성으로 들어오는 여정의 순서를 해체하여 ‘도성을 나가고 들어온 곳’, ‘북한산을 들어가고 나온 곳’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직접 본 것’과 ‘멀리서 본 것’을 나누어 제시한다. ‘치첩, 초루, 성곽, 회랑’에 대해서도 그것들을 여행 주체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지나가며 무엇을 인상적으로 보았는지 보다는 ‘성곽’을 이루는 하위의 대상들로 모아서 서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관아[官廡]’ 부분에서는 제일 먼저 ‘행궁’을 소개하는데 이는 산성에서 제일 중요한 시설인 왕의 피난처로서 ‘선원첩을 보관한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과 같은 세 개의 군사적 행정시설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중홍사 또한 사찰이지만 군기 창고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한산성이 도성 방어시설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는 장소라는 점, 산성 안에 행궁과 관청이 있으며 그 안에 있는 사찰도 군사적 기능을 담당하는 특수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서술이다.

불상. …… 석가의 궁은 일체가 그를 장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깊게 만들기를 채감(采龕)으로 하고, 높이기를 연화대(蓮臺)로 하고, 이어올리기를 비단의 자(錦墩)로 하고, 꾸미기를 수놓은 허리띠(繡鞶)로 하고, 따르게 하기를 향동(香童)으로 하고, 밝히기를 유리등(玻璃燈)으로 하고, 모으기를 종이꽃(紙花)으로 하고, 수북이 담기를 정병(淨瓶)으로 하고, 높이기를 법고(法鼓)로서 했다.²⁸⁾

승려. …… 승려의 옷은 베 두루마기나 푸른 면포로 만든 두루마기, 검은 베로 된 직철 두루마기로, 소매는 넓기도 하고 좁기도 했다. 승려의 갓은 대나무를 엮어 만드는데 단통모, 포랑침건, 폐양립 등이 있고 대나무 껍질을 까서 만든 것으로 대립(簾笠)이 있다. …… 위는 향아리같은데 그 꼭대기는 병의 입 모양

28) 佛像. …… 釋迦之宮，一切所以莊嚴他者，穹之以采龕。崇之以蓮臺，承之以錦墩，容之以繡鞶，從之以香童，瓏之以收玻璃燈，藂之以紙花，饌之以淨瓶，隆之以法鼓。是則大同，惟青巖小菴，香爐前，供紗幘漪風，僧伽有金屏，畫洞春，甚工。

처럼 되어 있다. 승려의 띠는 대개 명주실로 땀은 것으로 그 중 붉은 끈을 맨 자는 옥관자, 금관자를 모자에 붙이기도 했다. …… 허리에 푸른 비단 전대를 늘어뜨리고 영치에 이르게 하거나 쟁그랑쟁그랑 췌소리를 내며 걷는 자도 있는데 이들은 승려로 군직에 있는 자였다. 승려의 염주는 나무로 만들어서 옷칠한 것이 많다. …… 가사는 모양이 보자기 같지만 타원형이며 비늘을 잇듯이 만드는데 좌우에 월광보살이라고 수놓은 글자를 붙였고 이 글자에 자주, 녹색, 푸른색의 끈 세 개를 늘어뜨렸다.²⁹⁾

위 인용문은 ‘불상’ 중 한 대목이다.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석가여래상과 그것이 위치한 전각에 대한 것인데 그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서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깊게 만들기를 ~로 하고, 높게 만들기를 ~로 하고, 이어올리기를 ~로 하고(穹之以~, 崇之以, 承之以~)’에서처럼 같은 구문을 아홉 차례 반복하면서 여러 시점에서 불상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서술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인용문은 ‘승려’를 나타내는 ‘치곤(緇髡)’의 한 대목이다. 이 대목에서 작가는 북한산성 내의 사찰들에서 만난 스님들의 모습을 ‘옷, 갓, 띠, 염주, 가사’의 묘사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그들이 입은 ‘두루마기’의 옷감과 색, ‘대나무 갓’의 종류와 모양, 가사를 묶은 ‘허리띠’의 재료와 색깔, 전대의 모양과 쇠방울 소리, 염주의 재료나 가사의 모양새와 수놓은 모양 등 하나하나의 사물들의 속성이 조합을 이루어 승려들의 차림새를 종합적으로 떠올릴 수 있게 서술하고 있다.

29) 緇髡. …… 僧衣, 或布襖, 或青緇布襖, 或皂布直裰襖, 袖或廣或窄. 僧冠, 編竹短桶帽·布梁簪巾·蔽陽笠, 織竹皮簪笠. …… 上似缸, 頂似餅口. 僧帶, 絲條, 或絲條其紅條者. 貼玉圈或金圈于帽. …… 腰係青錦帔當尻, 鳴鐵琅璫而趨者, 僧之職軍者也, 僧珠, 多木而髹. …… 架娑, 形似袂而隋, 鱗緝而成, 左右貼繡字, 曰月光菩薩. 月光菩薩, 垂紫綠碧三條.

숙식. 맹교에서 자고 아침 일찍 도성을 떠나 승가사에서 밥을 먹고 또 태고사에서 밥을 먹고 거기서 잤다. 아침은 잔 곳에서 먹고 저녁은 부왕사에서 먹고 진국사에서 잤다. 밥은 전처럼 잔 데서 먹었다. 도성에 돌아와 성균관에서 밥을 먹고 다시 맹교에서 잤다. 모두 나흘 밤 자고 일곱 끼를 먹었다.³⁰⁾

술. …… 행궁 앞 주막에서 한 잔[碗] 반 마시고 태고사에서 반 잔[碗] 마시고 상운사에서 한 잔[碗] 마시고 훈국창 주막에서 한 잔[碗]을 마셨다. …… 손가장에서 한 잔[碗]을 마시고 약사전에서 한 잔[碗] 마시고 혜화문에서 청포 차림에 나귀 타고 온 이를 맞아 함께 마셨는데 마신 것이 일 종(鍾)이었다. 성균관에서 두 잔[觴]을 마시고 계자항에서 한 잔[杯]을 마셨다. 종(鍾)은 맑은 술이고 완(碗)은 흰 술이고 상(觴)은 진국술이다. 다른 말로 배(杯)라고 한 것은 홍로(紅露)를 말한다.³¹⁾

유기의 마무리 대목 중 ‘숙식[眠食]’과 ‘술(盃觴)’의 일부이다. 북한산 여행이라는 총체적인 경험 속에서 자신의 일행이 어디서 자고 몇 끼를 먹었는지, 어디서 어떤 술을 마셨는지를 정리하여 서술하고 있다. 특히 술은 ‘종(鍾)’, ‘완(碗)’, ‘상(觴)’, ‘배(杯)’의 구분에 따라 술잔의 크기와 종류도 달라지고 그 잔에 마시게 되는 술도 달라짐을 알려준다. 주막과 산성 안에서는 탁주에 해당하는 ‘완’을 자주 마셨다는 것, 혜화문과 성균관에서는 맑은 술인 ‘종’과 ‘상’을 마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숙식과 술의 항목을 따로 마련하여 제시함을 통해 여행 일정의 전체 윤곽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효과를 주는데, 그것을 ‘음식을 먹은 곳, 잠을 잤던 곳’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의 물적 요소를 통해, 또한 흥취를 돋구기 위해 중요한 물적 대상인 ‘술’을 통해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 眠食. 宿孟嶠, 而尋出都城, 飯僧伽, 又飯太古而宿. 朝飯於宿, 夕飯扶旺, 宿鎮國, 飯如前. 歸飯于泮, 復宿孟嶠, 凡四宿而七飯.

31) 盃觴. …… 行宮前墻, 一碗有半, 太古寺半碗, 祥雲一碗, 訓倉壚一碗. …… 孫家莊一碗, 藥師殿一碗, 惠化門選青袍而跨驢者, 邀與飲, 飲一鍾, 泮飲二觴, 桂子巷飲一杯. 鍾者清也, 碗者白也, 觴者醇也, 變而曰杯者, 紅露也.

이러한 서술의 특징은 여행 주체의 경험과 감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행지에서 만나게 되는 대상과 객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매개로 삼아 여행 경험을 객관화하여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목되는 것은 열다섯 개의 적지 않은 항목들에 대체로 일관되게 드러나는, ‘사물’을 경유하여 경험을 제시하는 객체 중심의 서술이 누적되면서 야기되는 효과이다. 여행 주체의 여정의 순서, 정서나 감흥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객관적인 대상을 나열한 분절된 항목들의 서술임에도 오히려 여행 경험의 사실성과 생생함이 살아있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2) 해석의 최소화를 통한 대상의 부각

이 절에서는 이옥의 <중흥유기>가 여행 주체가 여정 중에 본 자연과 대상들에 대해 유람자로서의 감흥이나 정서, 생각과 판단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대상의 존재 자체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그것의 개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했음을 살펴볼 것이다. 이 작품의 특징적인 서술 중 하나는 산수와 주변 풍경을 심미적 대상으로 바라보되, 그 대상을 평가의 기준으로 재단하거나 우열을 매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술 주체로서 보일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자신의 취향이나 호오, 혹은 미적 안목이나 해석을 최소화하고 그 대상만의 개별성과 존재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산성의 자연과 누정에 대한 다음의 기술들을 보자.

누정. 세검정은 도성에서 가깝고 이름난 곳이긴 하지만 돌은 너무 평평하고 물살은 너무 빠르고 땅은 너무 환하고 밝고 산의 모습은 너무 경쾌하여 귀족층의 공자 소년이 갈 만한 곳이다. 산중에서 이틀 머물며 산영루에 오른 것이 세 번이었다. 산의 어둡고 밝음과 물의 흐름과 맑음을 이번 산행에 모두 알게 되었다. 저녁 산은 아양떠는 듯 고운 단풍이 일제히 취한 모양이요, 아침 산은 조는 듯 아련히 푸르름이 젖어드는 모양이다. 저녁 물은 빠르게 흘러

모래와 돌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며 아침 물은 기(氣)가 있어 바위와 골짜기가 비에 적셔져 있다. …… 손가장에 있는 곳이 귀래정이고 그 냇물 위에 있는 것이 재간정이다. …… 흐르는 물이 그지없이 맑고 흰 돌이 수없이 박혀있어 진실로 도성 동쪽의 제일가는 마을이다. 그런데 붉게 새긴 시는 물에 깎이고 난간은 비바람에 침식되었으며 거미줄이 현판을 가리고 제비집이 기둥에 달려있는데 연못은 물이 얕아 퇴락했으며 토란밭은 어지러이 널려있다. 이지러짐도 새로 만들어짐도 없는 것은 오직 산색과 수성뿐이다.³²⁾

‘누정’ 항목에서 그가 서술하고 있는 것은 세 개의 정자가 있는 곳, ‘세검정’, ‘산영루’, ‘재간정’이다. 이 서술을 보면 작가는 이미 특별한 풍광으로 이름이 나 있는 세검정보다는 조용한 산영루 부근과 약간 퇴락한 듯한 분위기의 재간정의 풍경을 더 좋아하고 마음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세검정은 ‘너무 유명하고 밝고 당당하여 공자소년(公子少年)이 갈 만하다’는 표현을 통해 거리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에 비해, 산영루에 대해서는 이번 여행 중에 세 번을 거듭 찾아갔다고 말하면서 ‘산색(山色)’과 ‘수기(水氣)’의 ‘어둠과 밝기(晦明, 陰晴)’를 모두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산영루가 더 마음에 들었다는 자신의 주관적 취향을 더 강조하지 않고, 산영루의 ‘저녁 산의 단풍과 아침 산의 푸름’, ‘저녁 물의 빠름과 아침 물의 고요함’을 대비를 통해 산영루의 자연 그 자체를 부각시키면서 경관이 전해주는 고요한 감동 자체에 서술의 중점을 둔다.

재간정에 대한 서술 대목은 경치의 아름다움과 누정의 낡음을 대조하면서 그 풍경만의 독특한 존재성을 전해준다. 누정에 새겨진 ‘시와 난간’은

32) 亭榭 …… 洗劍亭近于京, 雖有名, 石太平, 水太爭, 地太明, 山太輕, 只可爲公子少年者行也. 留山中二日, 登山喫樓三. 晝而登, …… 山色之晦明, 水氣之陰晴, 今之行而集其成. 見暮山如媚, 楓葉齊醉. 朝山如寐, 藹乎滴翠. 暮水甚駛, 砂石不寢. 朝水有氣, 岩壑雨漬. …… 在孫家莊, 日歸來亭. 在川上, 日在潤亭. …… 流水鄰鄰, 白石鑿鑿, 固城東第一落. 顧朱刻詩, 爲水所泐, 闌干爲風雨蝕, 甚至蛛絲籠板, 燕泥栖檻, 蓮池淺古, 芋區縱橫. 無虧無成, 惟山色水□也.

부식되어 꺾어나갔고 ‘거미줄과 제비집’이 낡은 기둥에 자리를 차지해 버렸으며 근처의 ‘연못과 토란밭’이 어지럽게 널려있음에도, 그 풍광만은 ‘물이 지극히 맑고 흰 바위가 선명하여 성 동쪽에서 제일’이라는 묘사 역시 그 풍경을 이루는 자연과 사물 자체에 중점을 둔 서술이다. 세월의 흐름에 꺾어나가고 빛바랜 초라한 누정, 돌보지 않아 버려진 듯한 연못과 주변 밭의 쇠락한 풍경에도 불구하고 부근의 ‘산색과 수성만은 제일’이라고 하는 서술은 경관의 아름다움에도 순위를 매겨온 기존 산수유기의 품평과는 그 결을 달리하며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보여준다.

불상. 불실에 들어가니 오방이 모두 그림이었다. 부처 그림은 아름다웠고, 나한 그림은 어지러웠고, 시왕 그림은 교만했으며, 귀신 그림은 번뜩이는 듯하고, 옥녀 그림은 부박했고, 용 그림은 요동쳤고, 난봉을 그린 것은 빼어났고, 지옥 그림은 처참하면서도 묘했고, 윤회 그림은 분잡하면서도 또렷했다. 들음으로 인해 상상하고, 상상함으로 인해 형상화하고, 형상화함으로 인해 잘못이 있게 되어 이같이 경황이 없게 되니, 군자는 더럽혀질까 하여 감상하지 않고 소인은 공경하며 이마를 조아린다.³³⁾

불상 항목에서 각종 불화들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작가의 시선을 통해 법당 안에 가득 들어차 있는 불화들을 조명하고 있는데 ‘부처, 나한, 시왕, 귀신, 지옥, 윤회’ 등을 그린 하나하나의 그림에 ‘아름답다[韶], 어지럽다[殷], 교만하다[驕], 번뜩이다[爍], 처참하며 묘하다[慘而妙], 분잡하며 또렷하다[紛而昭]와 같은 한두 글자의 형용사를 대응시켜 서술했다. 이를 통해 불화(佛畵)들이 각각 취하고 있는 소재와 핵심적 인상, 각각의 그림마다의 생생한 특징이 살아있게 느껴진다. 작가에게 이렇게 오방에 가득한

33) 佛像. 入佛室, 五方皆繪事, 畫佛韶, 畫羅漢殷, 畫十王驕, 畫鬼爍, 畫玉女佻, 畫龍擾, 畫鸞鳳翹, 畫地獄慘而妙, 畫輪回紛而昭. 因聞而想, 因想而象, 因象而爽, 如是懔懔, 君子洗焉而不賞, 小人敬之以顙.

불화들의 인상은 다소 번잡하고 산만하게 느껴졌던 것 같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림’이라는 ‘형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떠올려보며 ‘형상을 따라 했으나 어그러지니 이렇게 경황없게 보인다(因象而爽, 如是懨懨)’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군자는 (그림을) 감상하지 않지만 소인은 그 앞에서 이마를 조아린다’라고 하여 불화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한 마디 내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결과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그 ‘당황스러울 정도’로 현란한 ‘불화’들의 파노라마, 그 낮은 대상들 하나하나의 압도적인 존재감이다.

천석(泉石). 탕춘대는 번잡하고, 상운사 폭포는 시원스럽고, 서수구는 엄숙하고, 칠유암은 환하고, 산영루는 풍요롭고, 손가장은 밝게 트였으니 모두 아름다운 풍광으로서 우열을 쉽게 정할 수 없다.³⁴⁾

초목. 불전 앞에 봉선화, 계상화(鷄箱花), 파리, 황규화가 많이 심어져 있었다. 과꽃 같은 것도 곳곳에 있었는데 붉은색, 흰색, 자주색의 세 가지 색이었다. 산을 두르고 있는 것은 소나무로, 절 부근에는 전나무와 자단목이 많고 시내를 따라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민가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름할 수 없는 잡목들도 많았다. 산에 가기 전에는 모두 단풍은 이르다고 했는데, 와보니 단풍나무, 담쟁이덩굴(絡石)과 나무로서 의당 붉어질 것은 이미 다 붉어져 있었다. 석류화같이 붉고, 연지같이 붉고, 분같이 붉고, 붉은 꽃처럼 붉고, 성혈(猩血)처럼 붉고, 질게 붉고, 연하게 붉어서, 가는 곳마다 색이 같지 않았다. 땅의 위치가 다르고 나무가 다르기 때문이다.³⁵⁾

34) 泉石. 蕩春臺攘, 祥雲簾瀑塹, 西水口眺, 七游巖煥, 山暎樓暈, 孫家莊視, 皆佳賞, 優劣未易標榜也.

35) 草木. 佛殿前, 多菰金鳳花·鷄箱花·紅姑娘艸·黃葵花. 若唐菊在在植, 花紅白紫三色. 環山皆松, 近寺, 多樅與紫檀木, 沿溪, 或櫻橡栗繞人居, 雜木多不可名. 未入山, 言楓太早, 及入, 楓及絡石及木之宜紅者, 已盡紅矣. 石榴花紅, 胭脂紅, 粉紅, 荷花紅, 猩血紅, 老紅, 退紅, 隨處而色不同, 地之區而木之殊也.

위 인용문은 ‘천석’, 샘물과 바위에 대한 항목이다. ‘탕춘대, 상운사 폭포, 서수구, 칠유암, 산영루, 손가장’과 같이 산성 안에 물과 바위가 어우러진 이름난 폭포와 절경들을 늘어놓은 후 각각의 장소가 주는 느낌을 역시 한 글자의 형용사로 집약하여 ‘번잡하다[攘], 시원하다[爽], 엄숙하다[黠], 환하다[煥], 풍요롭다[臚], 밝게 트였다[昶]’라고 특징을 제시하였다. 그 각각의 풍경들에 대한 더 이상의 해석은 없이 ‘모두가 아름답고 감상할 만하’니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하여 각 풍광들의 아름다움을 서열화하지 않으면서 각각의 자연이 가진 개별성을 존중하는 시선을 보여준다.

아래 인용문은 ‘초목’을 다룬 항목이다. 산성 부근 사찰들의 마당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자연스럽게 심겨 있는 소박한 꽃의 종류를 ‘봉선화, 계상화, 홍고랑초, 황규화’와 ‘붉은색, 흰색, 자주색’의 ‘과꽃’들로 소개하는 한편, ‘산이나 절, 시내와 민가’의 위치에 따라 각각 ‘소나무, 전나무, 자단목’부터 이름 모를 잡목까지 다양한 나무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지는 것은 산성 부근의 계절 풍경, 가을 단풍의 묘사이다. 산에 가기 전 ‘아직 단풍은 이르다’고 했던 예상과 달리 ‘불어질 만한 나무는 이미 다 붉어져 있었다’는 말대로 단풍은 절정이었다. 적홍색의 단풍이 다채롭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작가는 ‘석류화, 연지, 분, 쪽두서니, 성혈’ 등과 같은 붉음이라고 비유하면서 그렇게 붉은 종류가 많은 것은 ‘단풍이 든 장소와 나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주목하게 되는 것은 ‘붉은 빛들’의 ‘다름’을 포착한 작가의 시선이다. 나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그 나무가 무엇인가에 따라 붉은색이 달라진다는 당연한 듯한 서술은 그 각각의 존재의 다름과 존재성 자체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총론. …… 북한산은 아름다운 곳이며, 단아하고 순수한 이 몇몇 친구는 아름다운 선비이다. 아름다운 이들이 아름다운 곳을 유람했으니 어찌 그 여행이 아름답지 않겠는가? 자하동을 지나니 아름답고, 세검정을 오르니 아름답고, 승가

사 문루에 오르니 아름답고, 문수사 문에 오르니 아름답고, 대성문에 이르니 아름답고, 중흥사 동구에 들어가니 아름답고, 삼일 뒤 돌아와 푸른 주림, 동네 서포, 속세의 세상과 수레와 말들을 보니 새삼 아름다웠다. 아침도 아름답고 저녁도 아름답고 맑은 것도 아름답고 흐린 것도 아름다웠다. 산도 아름답고 물도 아름답고 단풍도 아름답고 돌도 아름다웠다. 멀리서 보아도 아름답고 가까이서 보아도 아름답고 불상도 아름답고 승려도 아름다웠다. 요컨대 그윽하여 아름다운 것이 있고, 밝아서 아름다운 것이 있고, 탁 트여서 아름다운 것이 있고, 높아서 아름다운 것이 있고, 담담하여 아름다운 것이 있고, 번다하여 아름다운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이같이 많을 수 있단 말인가! 이지는 말한다. “아름답기 때문에 왔다. 아름답지 않다면 오지 않았을 것이다.”³⁶⁾

북한산 여행에 대한 총체적인 평이 제시되어 있는 ‘총론’이다. 여기서 작가는 여행지였던 북한산, 함께한 사람들, 지나고 거처온 모든 장소들, 돌아와 새삼 다시 보이는 도성의 풍경들까지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며 서른네 번에 걸쳐 ‘아름답대[佳]’는 말을 반복한다. 여기서 같은 ‘아름답다’는 말의 반복은 언급된 대상들을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살아있는 아름다움으로 전달된다. ‘멀거나 가까웠기에, 그윽하고 밝았기에, 트였고 높았기에, 담담하거나 번다했기에’ 각각의 이유로 아름다웠던 장소와 지명, 자연과 사람과 사물의 존재성을 포착하고 그 대상들 하나하나의 특별함과 가치를 부각시킴으로써 여행의 의미를 삼고자 한 작가의 시선이 잘 드러난 대목이라 하겠다.

36) 總論. 北漢佳境也, 豈弟洵美二三子, 皆佳士也. 以茲游於茲. 如之何游之不佳也? 過紫峒佳, 登洗劍亭佳, 登僧伽門樓佳, 上文殊門佳, 臨大成門佳, 入重興峒口佳, 三日復入城, 見翠帘·坊肆·紅塵·車馬更佳, 朝亦佳, 暮亦佳, 晴亦佳, 陰亦佳, 山亦佳, 水亦佳, 楓亦佳, 石亦佳, 遠眺亦佳, 近逼亦佳, 佛亦佳, 僧亦佳. 要之, 有幽而佳者, 有爽而佳者, 有豁而佳者, 有危而佳者, 有淡而佳者, 有綽而佳者, 佳若是其多乎哉! 李子曰, “佳故來, 無是佳, 無是來.”

4. 결론- 사물과 대상, 그 뒤로 물러난 주체

앞서 산수유기라는 장르가 여행의 ‘주체’가 강조되는 장르이며 지극히 인간중심주의적인 장르임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산수를 바라보고 즐기는 유람 주체가 그 대상을 통해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거나,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심미적 안목을 얻거나, 독자적인 자기 표현의 문예적 감수성을 얻는 ‘주체 중심’의 경험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산수유기의 기록 주체는 산수가 담지하고 있는 유교적 철리의 해석자이거나, 산수의 자연미에 대한 품평자이거나, 산수를 통해 독창적이고 남다른 자의식을 발견하는 창작자였다는 점에서 늘 자연을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대상화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산수유기의 전통에서 이옥의 <중흥유기>가 갖고 있는 다른 지점을 살펴보려 했다. <중흥유기>에서는 유람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주체가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라고 정위하고 있으며, 유람 주체가 자연에 대하는 태도 역시 ‘내가 무엇을 보았다/깨달았다/느꼈다’의 방식보다는 ‘무엇이 있었다’에 가까운 서술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글은 이러한 <중흥유기>의 독특한 여행 체험 서술의 방식을 주체의 시각과 해석을 최소화하고 대상인 ‘물’ 자체의 존재성과 개별성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해 보았다. 즉 이 텍스트는 여행을 구성하는 사물들의 기능을 환기하고 자신의 경험을 객체화하여 바라보며, 여정 중에 만난 자연과 대상의 성질을 침해하거나 자기동일화하여 침묵시키지 않고 대상의 존재성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다고 읽어 보았다.

이렇게 ‘물(物)의 조합’ 그 자체가 하나의 여행 경험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글이라는 점에서 <중흥유기>는 대상과 주체에 대한 이옥 특유의 일정한 관점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그것은 글 쓰는 주체로서의 작가가 자신을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타자의 뒤로 물

러나 있게 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이는 이옥의 다른 글에서도 ‘존재의 동등성’, 혹은 ‘상대주의적 태도’나 ‘타자에 대한 관심’이라는 말로 언급되었던 점과 상통한다.³⁷⁾ 다만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단독으로 조명된 적이 거의 없었던 <중흥유기>라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여행이라는 경험과 그 기록에서도 작가가 체험과 사물, 대상과 타자를 자기동일성으로 환원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특히 ‘산수유기’라는 전통적인 장르의 관습 속에서 비추어 부각시켜 보고자 했다.

37) 이옥에게서 사물을 바라보는 동등성의 관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박수밀, 「이옥의 문학에 나타난 생태 글쓰기와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54, 우리어문학회, 2016, 326쪽; 민희주, 「이옥의 세계 인식과 글쓰기 방식」, 『민족문화연구』 8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8, 266쪽; 김정미, 「존재론의 관점에서 본 이옥의 별레에 대한 인식」, 『어문론총』 88, 한국문학언어학회, 2021, 28~29쪽. 이 외에 이 작품은 굳이 안 밝혀도 될 작은 존재들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도 존재론적 동등성이나 타자에 대한 관심의 측면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된 선비 외에 ‘동자 봉채’의 이름을 기록한다거나(‘반려’), 사찰마다 길 안내를 담당해준 승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길을 안내해준 ‘나무하던 아이 김용득’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다거나(‘승려’), ‘이제 막 머리를 깎아 범명을 못 받은 승려’가 ‘슬기로워 보였는데 절 뒤에 몸 숨겨 부끄러워 했음’을 굳이 설명한 다거나(‘승려’),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밖의 짐목들도 많았다’(‘초목’)고 언급하는 대목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참고문헌

- 이옥, 『선비가 가을을 슬퍼하는 이유-완역 이옥전집』 1권,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기고 엮음, 휴머니스트, 2009, 375~397쪽.
- 이옥, 『자료편 원문-완역 이옥전집』 4권,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기고 엮음, 휴머니스트, 2009, 116~126쪽.
- 권호문, <遊清凉山錄>, 『松巖集』 권5.
- 김창흠, 「東遊小記」, 『三淵集』 권24.
- 이황, <書曹南冥遊頭流錄後>, 『退溪集』 권30.
- 정구, <遊伽倻山錄>, 『한강집』 53권.
- 조식, <遊頭流錄>, 『南冥集』 권2.
- 고연희, 『조선후기 산수기행예술 연구-정선과 농연 그룹을 중심으로』, 일지사, 2001, 1~322쪽.
- 고연희, 「조선후기 산수기행문예에 나타나는, ‘기(奇)’의 추구」, 『한국한문학연구』 49, 한국한문학회, 2012, 69~100쪽.
- 김경미, 「존재론의 관점에서 본 이옥의 별레에 대한 인식」, 『어문론총』 88, 한국문학언어학회, 2021, 9~34쪽.
- 김상만·김성윤, 「물질의 귀환: 인류세 담론의 철학적 기초로서의 신유물론」, 『문화과학』 97, 문화과학사, 2019, 55~80쪽.
- 김선, 「북한산성 승영 사찰의 공간 배치와 특징 연구」, 『백산학보』 115, 백산학회, 2019, 113~141쪽.
- 김선희, 「유산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삼각산 여행의 시공간적 특성」, 『문화역사지리』 21(2),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9, 132~150쪽.
- 민희주, 「이옥의 세계 인식과 글쓰기 방식」, 『민족문화연구』 81, 2018, 259~286쪽.
- 박수밀, 「이옥의 문학에 나타난 생태 글쓰기와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54, 2016, 325~356쪽.
- 박일준, 「객체 지향의 철학: 초객체와 네트워크 그리고 공생」, 『인문논총』 55,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5~30쪽.
- 백진우, 「월곡 오원(吳瑗)의 산수유기 연구-금강산 유기인 「유풍악일기」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38, 열상고전연구회, 2013, 497~533쪽.
- 브루노 라투르, 『인간·사물·동맹-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홍

- 성옥 역, 이음, 2010, 1~336쪽.
- 신익철, 「〈중흥유기〉의 글쓰기 방식과 18세기 북한산 산행의 모습」, 『문헌과 해석』 11, 문헌과해석사, 2000, 147~161쪽.
- 심경호, 『한문 산문의 내면 풍경』, 소명출판, 2002, 1~391쪽.
- 안대회, 「조선후기 소품체 유기의 연구」, 『대동문화연구』 7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2, 211~240쪽.
- 안득용, 「농연 산수유기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22, 동양한문학회, 2006, 215~246쪽.
- 윤기엽, 「북한산성의 승영사찰」, 『국학연구』 25, 한국국학진흥원, 2014, 493~533쪽.
- 이경순, 「조선후기 유산기에 나타난 북한산의 불교」, 『인문과학연구』 20, 덕성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9~25쪽.
- 이계형, 「북한산에 건립된 사찰의 시대별 추이와 특징」, 『한국학논총』 61,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4, 71~107쪽.
- 이종묵, 「유산의 풍속과 유기류의 전통—장서각본 <와유록>과 규장각본 <와유록>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385~407쪽.
- 이종묵, 「조선시대 와유 문화 연구」, 『진단학보』 98, 진단학회, 2004, 81~106쪽.
- 이종묵, 「관물(觀物)과 성찰의 공부—남명학과를 중심으로」, 『남명학』 22, 남명학연구원, 2017, 129~156쪽.
- 이혜순 외,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 집문당, 1997, 1~499쪽.
- 정민, 「18세기 산수유기의 새로운 경향」,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157~180쪽.
- 정우봉, 「조선후기 유기의 글쓰기 및 향유방식의 변화」, 『한국한문학연구』 49, 한국한문학회, 2012, 101~135쪽.
- 제인 베넷, 『생동하는 물질: 사물에 대한 정치생태학』, 문성재 역, 현실문화, 2020, 1~280쪽.
- 호승희, 「조선전기 유산록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18, 한국한문학회, 1995, 97~126쪽.
- 황아영, 「이옥 유기의 미적 특성」, 『한문고전연구』 16,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261~294쪽.

ABSTRACT

Characteristics of travel imagery in Yi Ok's <Jungheung Yugi>
-Focusing on object-centered description and the position of the subject-

Hong, In-sook

This paper examines the uniqueness and significance of <Jungheung Yugi(重興遊記)> as a landscape travelogue, view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rtrayal of travel in <Jungheung Yugi(重興遊記)> by Yi Ok(李鈺, 1760-1812) of the late Joseon Dynasty as stemming from the manner in which objects and subjects are described. Travel was an experience in which the subject experienced and appreciated nature, emphasizing the subject of the journey. While most landscape travelogues from the early to the late Joseon period emphasized this subject-centeredness, Yi Ok's <Jungheung Yugi(重興遊記)> is seen as demonstrating a travel narrative focused on the subject. To this end, the paper first briefly examined the historical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travelogues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then analyzed the features of the travel experience narrative in <Jungheung Yugi(重興遊記)>, noting that it presents an experience centered on "objects and subjects" and adopts a method of "highlighting the subject through the minimization of interpretation." I have analyzed the portrayal of travel in <Jungheung Yugi(重興遊記)> as a perspective that prioritizes the existence and individuality of the "object" itself—specifically, the "thing"—by emphasizing its phenomena and state, rather than a human-centered view that highlights the "subject" of the journey. By describing a travel experience as a "combination of things" itself, <Jungheung Yugi(重興遊記)> demonstrates Yi Ok's unique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ject and the subject, and can be considered a work that exhibits an attitude of placing the author, as the "subject," behind the object and the other.

Key Words Yi Ok(李沆, 1760~1812), <Jungheung Yugi>, object, Bukhan Mountain, travel record, travelog

논문투고일: 2026.07.15.

심사완료일: 2026.08.09.

게재확정일: 2026.08.13.